

# 북극해 주변 지역수산기구의 현황 연구

임지형\*

\*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

## A study on the status of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on the Arctic

Lim, Jee Hyung\*

\* World Ocean Development Institution,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핵심용어** : 북극해, 중앙북극공해, 어업, 지역수산물기구/협약, FAO

**Key Words** : Arctic Ocean, the high sea of Central Arctic, fisher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Agreement, FAO

### 1. 서론

유엔해양법협약과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은 공해 상 경계 왕래성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종에 대해 지역수산물기구를 통한 관리와 국가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농업식량기구(FAO)는 전세계 바다를 어업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53개의 지역수산물기구가 활동 중이다.

중앙북극해는 공해지역으로 비규제 상업적 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협약 제정이 성안단계에 있다. 이 협약의 최종 목적은 지역수산물기구의 설립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북극 주변 지역수산물기구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동 해역에 설립 될 지역수산물기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지역수산물관리체제의 유형

공해어업 관리에 있어 지역수산물관리체제는 지역수산물기구(RFB),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와 지역수산물관리약정(RFMA)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수산물기구와 지역수산물관리약정은 그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FAO에 따르면 지역수산물기구는 어업을 행하는 국가나 기구가 어업을 보존·관리·개발하기 위하여 취하는 하나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3. 북극해 주변 어업을 관리하는 지역수산물기구

#### 가. 북대서양수산물기구(NAFO)

북대서양수산물기구는 정부간 수산과학 및 관리 기구로, 관할 수역의 어족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에 따르면 북대서양과 연안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6,551,289km<sup>2</sup>에 달하는 넓은 수역을 그 관할 수역으로 하나, 관리대상 어족인 경제왕래성 어족에 적용을 하면

2,707,895km<sup>2</sup>를 관할 수역으로 하고 있다. 연어와 참치/청새치, 고래, 정착성어족을 제외한 북대서양 대부분의 어족자원에 적용된다.

#### 나. 북동대서양수산물위원회(NEAFC)

북동대서양수산물위원회는 북동대서양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로서 1980년 체결된 북동대서양수산물위원회 협약에 의해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그린란드의 남쪽 끝에서 바렌츠해 동쪽과 포르투갈 서쪽이 관할 수역으로 5개국의 회원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5개국의 비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관할수역을 협약수역과 규제수역으로 나누어 어업을 관리하고 있다.

#### 다.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협약(CBSPC)

중부베링해는 경제왕래성어족인 명태 서식지로 대표적인 어장이다. 동 위원회는 중부베링해를 협약수역으로 하고 있으며, 명태자원의 보전 및 관리, 최적의 이용을 위해 허용어획수준(AHL)과 협약당사국별 쿼터(INQ)를 설정하고 있다.

#### 라.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 양자골격협약(the bilateral Framework Agreement)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양국가의 어업을 위한 것이다. 동 협약은 북동대서양을 협약수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동 위원회는 자신들의 권한이 연안과 바렌츠해로 국한되지 않고 북극해까지 확장된다고 주장한다.

###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북극공해를 완전히 관할하는 지역수산물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약290만km<sup>2</sup>로 단일 지역수산물기구가 관할하기엔 매우 넓은 수역이다. 따라서 해당 수역은 복수의 지역수산물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First Author : jhlim@kmou.ac.kr, 051-410-5388